Entertainment p/18

에드 시런 8일 첫 내한공연

metro

News p/23

9호선 출근 대란을 막아라

물이 너무 맑아

전방위 칼날 '김영란법' 파장… 소매업계 전전긍긍 p/2,3

백화점 · 호텔 · 음식료 등 울상… 자영업 창업도 주저

제2 추신수 강정호 '느낌 좋아'

중국 스모그는 석화업계 탓?

전직 여기자 자비 들여 다큐 제작

metro HongKong

중국 공영방송 CCTV의 '간판'으로 활약했던 전직 여성 기자가 자비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화제다.

메트로 홍콩은 차이징이 지난달 28일 인터넷에 공개한 '돔 아래서(穹頂之下)'에 대한 네티즌들의 열기가 뜨겁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일까지 유쿠·텅쉰 등 주요 동영상공유 사이트의 조회수가 1억 건을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차이징이 자비 100만 위안(약 1억7500만 원)을 들여 찍은 동

영상은 차이징이 여러 오염현장을 찾아 스모그의 원인을 고발하는 형식이다. 차이징은 "중국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이 석유화학업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환경 당국 심지어 발전개혁위원회 측에서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대기오염문제 등 생생하게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차이징은 문제를 외면하고나 침묵하지 않고 용감으로 도전했다" "내가 100만 위안이 있었으면 이민을 선택했을 텐데 대단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차이징을 응원하고 있다. /정리 이지현기자

청렴국가 경제성장률 더 높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국회 통과의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청렴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며 "김영란법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성보 권익위원장 '경기침체' 우려에 반론…"장기효과 봐야"
"김영란법 경제성장에 도움… 국가 청렴도 획기적 제고 가능"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부정청탁과 관행적 금품수수가 근절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성보 위원장은 4일 김영란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의 수장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렴한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이 높은 등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계 반부패운동단체 한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말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순위 추락을 계속해 왔다. 김영란법의 발단이 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 발생한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를 기록했다. 2014년 43위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로박혀 한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CPI는 정치인과 공무원 부패 정도를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에게 물어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 투자의 키 등 전 이들에게 한국은 부패국가로 낙인찍혀 있다는 의미다. 우리사회 각계는 그동안 이 같은 한국의 부패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도 우리사회의 부패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그 동안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의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한 법이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률이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논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대비해 후속 조치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전쟁고아 1000여명 구한 6·25 참전용사 딘 헤스 별세 6·25 전쟁 당시 1000여 명의 전쟁고아를 구한 딘 헤스 미 공군 예비역 대령이 3일(현지시간) 거주지인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사진은 한국 보육원에서 고아들을 살피는 딘 헤스. /연합뉴스

2조원 규모 한국형 원전 사우디에 수출

2조원 규모의 토종 스마트(SMART) 원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해 시범운영하고 사우디와 공동으로 제3국에까지 수출한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스마트 공동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스마트 원전은 대형원전의 10분의 1 수준인 10만㎾급 중소형 원전으로 전기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냉각수 대신 공기로도 원자로 냉각이 가능해 내륙 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보다 5년 정도 기술이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사우디는 현재 급증하는 자국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을 집중 육성 중이다.

MOU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투자를 통해 예비검토사업(PPE)을 실시하고, 사우디에 2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원전 2기를 시범건설해 제3국에 공동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카이스트 교수진과 학생을 사우디 대학에 파견해 학·석사 과정의 원자력 공학과 개설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의 왕압둘라 원자력재생에너지원(K.A.CARE)간 원자력 인력양성 공동센터 설립 등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분야에서 14건의 MOU가 체결됨에 따라 스마트 원전을 포함, 사우디전력공사 발주 프로젝트 30억 달러,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2억 달러, 특화제약단지 구축 2억 달러 등 54억 달러 수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분이기자 yoona12

"김영란법, 검·경 개혁 없이는 죽은 법"

야당의원 공동성명…"검·경 직선제 개혁해야"

이종걸(사진)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직선제로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 등은 성명에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의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제정된 법이다. 검찰·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김영란법은 죽은 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대한민국 검찰·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정치권력에 영합해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해 온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힘은 더 커질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힘이 커지는 만큼 김영란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진정 사회 윤리의식 제고와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법으로 생명력을 가지려면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김영란법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국민을 위해 일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직선제는 검찰과 경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여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이 의원외에 신기남, 신학용, 문병호, 신계륜, 김기준, 최민희, 김광진, 김용익, 이학영, 김기식, 유대운 의원 등이다. /송병형기자

"이제는 이학수법이다"

박영선 "4월 국회서 법사위 상정 예상"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월국회에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직사회를 맑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 이학수법은 경제정의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어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법안이 제출되면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 4월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의 법제도상 역할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범죄수익은 몰수한다는 원칙이 있기는 하다"며 "그런데 이 법에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병언법에) 재산권에 대한 범죄인 경우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재벌 관련 범죄들은 피해자가 개인사이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그 회사의 임원"이라며 "임원들이 재벌 총수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 예컨대 범죄를 이용해 제3자가 혜택을 보거나 그 혜택을 통해 세금을 안 내거나 불법증여를 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학수법은 이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의 일차 적용 대상이 삼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삼성SDS 사건 재판에 이은 이중처벌이자 소급입법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을 발의하기 전에는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법을 제출하고 나니까 상당히 수그러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 측이 삼성SDS 사건 재판 이후 증여세와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는 것과 도의적 책임, 범죄수익환수는 별개의 문제다. 다른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삼성 측에서 교묘하게 섞어서 여론전을 하는 것 같다"며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재벌과 관련해 "그 동안 재벌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나면 특정 재벌들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로비를 해서 국회가 정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국회를 기웃거렸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며 "김영란법의 통과로 이런 것들이 근절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천정배 탈당… 광주 보궐선거 출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천정배 전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이번 4·29 광주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야권의 텃밭인 광주에서 야권 분열이 현실화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게 됨으로써 이후 야권 지형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북한 언젠가 붕괴한다는 '김정힐'

<김정일+크리스토퍼 힐>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언젠가는 붕괴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세계언론인회의 강연에서 "북한은 사실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미사일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붕괴가 논의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특히 미사일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제재 붕괴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비둘기파 중 한 명이다. 과거 6자회담 미국 측 대표로 특유의 전향적인 대북 접근법으로 6자회담을 진전시켜 국무부 내 반대파로부터 '김정힐(김정일+크리스토퍼 힐)'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미국 내 대북 비둘기파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붕괴론'이 언급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결국 붕괴한다"고 말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인 해결책은 답이 아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어 전쟁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선거 때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큰 성과를 내기보다는 한 발짝씩 나가는 성과가 필요하다. 신뢰에 기반해 조금씩 함께 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북한 지도자가 우리의 제안에 '멋지군요, 따라가겠어요'라는 식으로 반응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정윤아기자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촉구
공무원 연금개혁! 이제 싫어도

공무원 연금 개혁 촉구 기자회견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은 진전 없이 공전 중이다. /연합뉴스

김무성 "디플레 초기단계, 해법 내놔야"

"물가상승률 사실상 '−'… 심각하게 생각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당·정·청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5% 상승해 상승률이 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로 볼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경제의 큰 흐름을 제대로 잘 잡아 무엇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 부분이 0.58%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월 산업생산은 지난 달보다 0.3%, 광공업 3.7%, 설비투자 7.1%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하락, 소비감소, 투자감소, 물가하락이라는 경제 축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기를 담당하는 정책당국은 면밀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방향을 잘 잡아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전날 2월국회 마지막날 열린 본회의에서 11개 경제활성화 관련법 중 2개만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표는 "일자리창출의 기반이 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우리 국회가 협법국회가 아니라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월국회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중 19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11개 법안중 9개 법안의 처리는 다음 국회로 이월된 상태다.

김 대표는 "주요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무려 35만개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 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 소모적 정치논쟁을 통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윤아기자 yooaa@

'박상옥 결사반대' 야당, 기류 변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4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격한지를 논의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참여연대 등 참석자 대부분은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지만 논의한다는 자체로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행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박 후보자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대법관의 자격을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간담회를 더 할지 생각해보겠다"며 "의혹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이 드러나면 청문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늘려 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부분은 박 후보자가 부적격자라 판단하는 것 같지만 대법관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안 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해 3월 중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반조계 의견도 균형 있게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송상현기자

외국인 노동자 하루 11시간 일한다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 단순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해 매달 189만원을 번다.

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편견·차별 문제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시내 거주 외국인 단순노무자 700명의 생활환경을 조사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서울 거주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일반기업체 종사자를 포함해 총 41만5059명이다.

이 중 단순노무·서비스업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만9620명으로 22%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평균 월급은 189만원이다.

외국인노동자로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의사소통(46.2%), 편견·차별(40.1%)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거·의료 등 기본 생활안정 정책(29.2%), 한국어교육 등 조기정착 교육·상담(25.0%), 일자리 지원 정책(22.8%) 등을 꼽았다.

Foreign laborers work 11 hours a day

Foreign laborers in Seoul work average of 11 hours a day and make 1.89 million won ($2000).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prejudice are the two things which trouble them the most. This was reported last December based on the survey done by 700 foreign laborers living in Seoul. There are total of 415,059 foreigners living in Seoul who are married immigrants, exchange students and general enterprise employees. Among these 22% which is about 89,620 people, are working in simple labor service industries. The average working hours of these foreign laborers is 11 hours and their average salary is 1.89million won ($2000). As a response for "What is the most critical problem working as a foreigner?" was communication difficulty 46.2% and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40.1%.The essential policies needed for foreign residents are policy regarding housing, medical insurance and social stability (29.2), Korean education, early settlement education and consultation (25.0%), and employment support policy (22.8%).

/이지은기자·번역 상하이(Chris Kim)

중국까지 가세한 미국 원정출산

현지 수사당국 대대적 단속 나서

미국 행동수사당국이 '예상을 가장한 원정출산' 일제단속에 나섰다.

기존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조직적인 원정출산이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미 합동수사관들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근교에서 출산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 업체들이 운영하는 다수의 아파트를 급습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지니아 키스 이민세관국 대변인은 "브로커 집단이 조직적으로 거액에 아시아 지역에서 온 임신부들의 원정출산에 비자 부정발급 여행기록 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은 임산부 1인당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임신부는 병원비 2만8845 달러(약 3167만 원) 가운데 4080 달러(약 448만 원)를 라스베이거스에서 명품 가방과 옷을 산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임신부에게 의료진료 서비스의 숙박시설,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브로커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원정출산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인 밀집지역인 LA 카운티 로우랜드 하이츠 월넛, 오렌지카운티 어바인, 샌버나디노 카운티 란초쿠카몽가 등이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어바인 시 역에서는 2013년 이후 아시아에서 온 임신부 400명 이상이 원정출산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원정출산이 줄지 않는 것은 아시아 임신부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강력한 욕구 때문이다.

LAT는 "중국 대도시의 대기오염과 식품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다 중국의 반부패 드라이브까지 겹쳐 중국 부유층들의 원정출산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AP 뉴시스

유행 예감 수영복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패션위크 행사에서 모델이 2015-2016 가을·겨울 수영복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AP·AFP 연합뉴스

집권 3년 시진핑 체제 위협받나

양회 첫날 쿠데타 기도 사실 적발…관련자 사전 체포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진핑(사진) 정부가 쿠데타설에 휩싸였다. 3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첫날 일부 고위층 인사들의 체제 전복 시도가 드러난 것이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정치 행사로 한해 중국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이 여기서 결정된다.

3일(현지 시간) 보쉰 등 현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진핑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양회 개막날 발생했다. 군부의 일부 인사들이 당 총서기의 경호를 담당하는 당 중앙판공청 산하 중앙경위국 병력을 동원해 군사 정변을 기도한 것이다.

정변 시도는 판창룽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사전에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쉬차이허우 전 국가 부주석 측과 접촉했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 정변 기도 계획을 사전에 발각하고 베이징군구 38특수부대를 긴급 출동시켜 중앙경위국 영관급 이상 간부 300여 명을 무장해제시키고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제 전복은 무위로 끝났지만 이번 쿠데타설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시진핑 정권의 위기 신호를 방증했다.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축출된 저우융캉 전 정법위원회 서기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와 함께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 취임 전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더욱이 시 주석은 최근 4년 사이 6차례나 암살 위기를 넘겼다.

◆ 시진핑의 홍콩 정책 이상 기류

반면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업무보고에서 '고도자치'란 표현을 생략해 홍콩에 대한 이상 기류가 감돌았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고도자치(高度自治·최대의 자치허용) 등 3개 원칙을 주요 행사 때마다 언급해왔다.

이에 중국 당국이 홍콩 자치에 간섭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협 관계자는 "같은 표현을 늘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홍콩에 대한 당국의 기조는 그대로다"고 일축했다.

"가계부채 인위적 감축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금융정책 윤곽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향후 금융정책 밑그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4일 임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 개선과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전국민적인 부채 탕감과 부채감축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리한 가계부채 감축은 바지 않겠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인위적 감축 없을 것"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 축소 등 인위적인 부채감축 유도정책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연체자에 대한 추가 부채탕감에는 신중론을 폈다.

임 내정자는 "성실한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고의적인 채무상환 거부 등이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 의원이 제기한 LTV(주택담보비율)·DTI(총부채상환율) 규제완화에 대해선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서민금융·과감한 규제 개혁 추진"

창조경제 등 경제활성화의 서민금융에 관련해선 금융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사유과 경쟁에 기초한 금융업의 경쟁력 하다를 위해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각 금융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확대를 유도해 여성과 고교 졸업자들도 경력단절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이 편하게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펼 것"이라며 "단순한 자금대출 형태를 넘어 상담·교육 일선 등 재기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존 기재부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가 따라가는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서민경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 자원에서의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아련기자 sjlee@metroseoul.co.kr

신한銀 장기 미사용 계좌 1일 인출한도 70만원으로

신한은행이 금융사기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4일 신한은행은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출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미사용 계좌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는 종전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에서 각각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약관공시 후 4월 초부터 시행된다.

다만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에서 계좌인출 한도 증액 요청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종전 한도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지난 1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협의위를 중심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전담창구 운영 ▲이상거래 유형을 반영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추가 징구 ▲포스터 및 고객안내를 통한 대포통장 근절 홍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직원 업무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주요대책 중 하나인 1년이상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계좌의 현금 인출한도 축소를 추진해왔다"며 "대포통장과 관련된 많은 피해가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개선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아련기자

수출입은행 사우디전력공사에 30억달러 금융지원 협약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포시즌 호텔에서 사우디전력공사(SEC)와 30억달러 규모의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지어드 알 쉬하(Ziad M. Alshiha) SEC 사장, 살레 알 어와지(Saleh H. Alawaji) 사우디수전력청 차관 겸 SEC 이사회 의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설위현 한국수출입은행 신임부행장이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 횡보… 디플레이션 우려 걱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경제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5~6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전히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의 성장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유로존, 일본, 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지난해 3.3% 성장, 취업자 53만명 증가, 고용률 사상 첫 65% 돌파 등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청년 실업"이라면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노동시장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전체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라갔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며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기기자

market index <4일>

지표	수치	등락
코스피	1998.29	(-3.06)
코스닥	605.35	(+4.71)
금리	1.90	(-0.01)
환율	1100.60	(+5.00)

마그네틱카드 대출 제한 ATM서 오늘부터 실시

금융감독원은 4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앞면에 삼하약 1㎝ 크기의 IC칩이 없고 뒷면에 MS(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용은 5일부터 제한되며 금융사들은 내년 2월까지 ATM에서 IC칩 손상 등으로 거래 불가할 때에만 MS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IC칩이 없는 신용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IC신용카드로 조속히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아련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9(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 인쇄인	남 궁 호
사장 편집인	김 용 학
편 집 국 장	김 세 손
광 고 문 의	(02)721-9861-3
독 자 센 터	(02)721-9871

베일벗은 '삼성페이', 카드사엔 양날의 칼?

"결제생태계 구축" vs "새로운 경쟁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국내 카드사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제편의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정된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카드사 6곳과 손잡고 오는 여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앱카드 협의체를 통한 것으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6개사는 일회용 가상 카드인 앱카드 방식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BC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카드 역시 협약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삼성페이와 제휴를 맺은 미국 금융사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은행 등 10여곳이다.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카드사 고객은 전세계 어떤 카드 단말기에서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삼성페이는 NFC(근거리무선통신)와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바코드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 기존 결제 단말기 뿐만 아니라 비접촉 결제 단말기 모두에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제시 카드 번호 대신 암호화된 임시번호인 토큰을 도입, 보안을 강화하고 위변조를 방지한다.

이인종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의 모바일 결제와 상거래에 대한 비전은 보안과 더 많은 가맹점에서의 수용, 그리고 간편한 사용자 경험에 맞춰져 있다"며 "삼성페이는 마스터카드의 토큰화 기술 서비스와 함께 삼성 고유의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과 NFC 기술을 이용해 대부분의 NFC 단말기와 기존 마그네틱 단말기에서 안전한 비접촉 모바일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페이의 등장에 카드사들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삼성페이의 등장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확산에 도화선 역할을 한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삼성페이'는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고객과 카드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삼성페이의 경우 기존 카드사와의 제휴를 거쳐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모바일 기술의 성장과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수수료와 수익구조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바람이 불면서 카드사 내부적으로 출시한 앱 등 자체 서비스 역시 상당히 발전된 상태"라며 "현재로선 선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플랫폼 내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배분할 지, 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낼지에 대한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a.ryeo0@metroseoul.co.kr

"롯데아이행복카드 잘나가네"

출시 두 달만에 10만매

롯데카드는 지난 1월 출시한 롯데아이행복카드가 출시 두 달 만에 10만매 발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할인서비스에 롯데만이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서비스 인프라를 더한 상품이다.

특히 지난달 이용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할인해주는 점이 장점이 있다.

예컨대 전월 100만원의 신판 이용실적이 있는 고객은 당월 5만원까지 해당 업종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받은 매출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전월 최소 이용금액은 30만원. 할인한도의 상한선은 없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 결제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와 롯데홈쇼핑, G마켓, 백화점, 제로투세븐닷컴에서는 5%, 토이저러스와 키자니아 30%, 병의원·약국 업종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로는 학원·학습지, 유원지·놀이시설 업종 교통 10% 할인과 모든 통신사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매월 2000원 할인도 있다.

아울러 롯데마트 다둥이클럽 서비스와 롯데월드 연간회원권 그린권 25%, 롯데면세점 5~10% 할인 등 롯데카드 기본서비스와 우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육아용품 전시회인 베페 베이비페어 전일 무료입장권과 유아동 전문몰인 제로투세븐닷컴 1년 VIP서비스, 지자체 문화체육시설 등이 할인된다. 아울러 그린카드 서비스를 탑재해 에코머니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롯데카드는 3월말까지 롯데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최대 2만점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시행중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국가적 지원의 복지서비스에 롯데의 고객서비스까지 더해지면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아이행복카드를 시작으로 고운맘카드 등 다른 국가 바우처카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대우건설 쿠웨이트 클린퓨얼 프로젝트 착공식 지난 3일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Clean Fuels Project) 공사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 행사에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하핑 알 아와디 KNPC 수석부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LH, 만55세 이상 시니어사원 1000명 뽑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만55세 이상 시니어사원 1000명을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되는 시니어사원들은 5월 4일부터 6개월간 전국 731개(57만5000가구) 임대아파트에 배치된다. 임대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단지환경 정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 입주자 만족도와 주거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특히 목공·도배 등 전문기술을 가진 시니어사원과 함께 '임대주택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 기업 자산인 임대주택의 가치와 입주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전국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경제수준·세대주 형태·건강상태·전문성·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22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이며 매달 59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혜택도 받게 된다.

LH 이재영 사장은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되는 어르신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최고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부 정책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참여 및 접수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채용상담 콜센터(1644-5993)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가능하다.

/박선옥기자

코스피, 화학·건설·조선주 주목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자 유망 업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그리스 구제금융과 미국 조기 금리인상 우려 등 대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유동성 확대 분위기가 조성됐다. 연초 이후 1월 말까지 누적으로 1조원 넘게 순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2월 이후 매수 강도를 더해갔다. 지난주 후반에는 누적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다. 투자 심리를 회복한 외국인이 매수 행렬을 이어가면서 코스피지수는 3일 2000선을 돌파했다.

3월부터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로 유럽계 자금이 유입,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유로존 양적완화로 유동성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지수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화학, 건설, 조선 등 기존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경기 민감주를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화학, 건설, 조선이 이끌어가는 장세가 예상된다"며 "3월 기준 화학, 건설, 조선 업종은 외국인 보유비중이 낮은 편이고, 가격 밸류에이션 이익 재무안정성이 커 수급 모멘텀이 가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진 kb투자증권 연구원도 "경기 순환 성격이 큰 장기 소외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유동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화학, 정유, 건설 등 저평가받고 있던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 국면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스피지수가 오르며 증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 업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해 브로커리지의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며 증권업을 유망 업종으로 추천했다.

/이보라기자 purple@

중소형주 너무 달렸나

증시 전문가 "연초 과열…3월 숨고르기 시점"

3월 국내 증시에선 연초 과열 양상을 보인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쉬어가야 할 타이밍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3월 증시는 중소형주보단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라며 "3월 중소형주 시장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올 연초부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형주 강세가 펼쳐진데는 실적 개선이 한 몫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닥 상장사 469개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4.13%, 25.47% 증가했다. 올해도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이익 증가율이 유가증권시장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 중소형주 펀드에서 기관 자금 이탈이 구체화되고 있어 3월은 넘칠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석원 NH투자증권 스몰캡팀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바이오나 삼성전자 신제품 수혜 예상 종목, 중국 정부 내수부양에 부합하는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NH투자증권 3월 추천주로 디오, 솔루에타, 해성옵틱스, 에이씨티, 자이나라오랑, 더존비즈온 등을 꼽았다. 디오는 헬스케어 융합비즈니스, 자이나라오랑은 중국 소비재시장 성장에 따른 동반 성장이 투자포인트다. 솔루에타, 해성옵틱스의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S6 수혜 기대감, 에이씨티는 화장품에서 신업용 헬보보 사업확장, 더존비즈온은 클라우드컴퓨팅 진흥정책 수혜 전망이 추천 근거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달 내부적으로 과도한 코스닥·중소형주 쏠림 현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분산에 따른 대형주 할인이 지나치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일부 중소형주에는 차익실현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시장이 과열돼 부담스럽다면 유가증권시장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내에서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이익 개선세가 월등하다. 지난해 4분기에 코스피 대형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49%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176.14%, 231.47% 급등했다. 올해 1분기에도 중형주와 소형주 영업이익은 각각 176.14%, 23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주(2.77%)와 큰 격차를 보였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KOSDAQ 630.35 ▲4.71 (0.75%)

코스닥 630선 돌파 2008년 6월 이후 처음 4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4.71(0.75%)포인트 오른 630.35로 마감했다. 지수가 63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연금저축♥IRP 베스트 커플 이벤트' 실시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연금저축계좌♥IRP 가입 베스트 커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첫 신규 가입, 연금자산 순증, 연금저축계좌♥IRP 300 베스트 커플 등 세 가지다. '첫 신규 가입 이벤트'는 이벤트 대상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 10만원이상 신규 가입하고 매달 10만원 이상 3년동안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에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단 작년 말 기준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지않은 고객에 한해 제공한다.

타사 연금을 이전하거나 퇴직금을 납입하는 고객을 위한 '연금자산 순증 이벤트'는 작년 말에 비해 오는 6월 말 연금저축계좌 잔고가 늘어난 경우 순증 금액별로 최대 10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이상 펀드를 매수하고 IRP계좌에 3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1만원상품권을 추가 증정하는 '베스트 커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연금저축계좌의 납부 한도가 2013년부터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절세효과와 노후대비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퇴직연금 납입의 한도(DC형 IRP계좌)가 300만원 추가되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보라기자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IRP
베스트 커플 이벤트 실시!
이벤트 기간 2015.3.2(월)~6.30(화)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연금저축계좌♥IRP 가입 베스트 커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제공

키움증권 '만기1년6개월 ELB·지수형 ELS 2종'

키움증권은 3일부터 6일 오후 1시까지 원금보장형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2종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키움증권 ELB 36호는 기초자산이 KOSPI200지수이며 지수상승률에 따라 만기수익률 최대 15%를 추구하는 만기 1년 6개월의 원금 102.01% 보장형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해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해서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지수상승률의 참여율 50%를 적용해 최대 9.51%(연 6.34%)의 수익을 지급한다.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한 적이 있거나, 만기평가일에 지수가 하락해도 원금의 102.01%가 보장된다.

또한 키움증권은 원금비보장형 ELS 2종을 공모한다.

종목형 '키움증권 ELS 494호'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현대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최고 39.90%(연 수익률 13.3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며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90%(6개월, 1년, 1년 6개월), 85%(2년, 2년 6개월, 3년) 이상인 경우 최고 39.90%(연 수익률 13.30%)로 상환된다. 다만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일 경우 하락률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최근 인기 있는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이다.

최근 인기 있는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키움증권 ELS 495호'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최고 31.5%(연 수익률 10.50%)의 수익을 지급한다. 발행 후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년, 1년 6개월), 85%(2년, 2년 6개월, 3년) 이상인 경우 연 수익률은 10.50%로 상환된다. 만기까지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행후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기가격이 최초기준가격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기준) 31.5%(연 수익률 10.50%)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보라기자

아직 '만도' 색깔 지우지 못한 대유위니아

홈페이지 위니아만도 표기

대유그룹이 옛 위니아만도를 인수한지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만도' 색깔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대유그룹의 계열사 대유에이텍은 작년 10월 대유위니아 지분 70%를 805억원에 유럽계 사모펀드 시티벤처캐피탈(CVC캐피탈)로부터 인수했다. 이후 대유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을 단행했다. 대유위니아가 체질 개선을 위해 조직·인사 등 경영 관리체계 전반의 변화를 선언했다.

6년 넘게 위니아만도를 이끌던 민원식 대표가 전격 물러나고, 박성관 전무가 대표이사에 새로 선임됐다. 민 대표와 함께 오랫동안 위니아만도를 이끌었던 이윤종 전무도 전격 회사를 떠났다.

대유위니아의 지휘봉을 잡은 박 대표는 작년 12월 "주력상품인 딤채의 에어컨, 에어워셔, 양문형 냉장고뿐 아니라 주방가전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며 "대유위니아가 글로벌 종합가전 업체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대유위니아는 만도의 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대유위니아의 전 주인인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CVC캐피탈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얼굴을 나타내는 홈페이지도 4일 현재 위니아만도로 표기된 상태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대유위니아'로 표기됐다. 유일하게 대유위니아 홈페이지만 교체되지 않았다.

대유위니아 홈페이지 지도 캡처

위니아만도로 표기된 충남 아산 공장은 위니아만도가 에어컨 전문업체로 출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다. 현재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에어워셔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산 공장에 수도권 연구 인력을 영입해 활발한 기술 개발을 진행중이다.

또 CVC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경우 2년에 걸쳐 매년 잔여분을 순차적으로 대유에이텍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달아놓았다. 때문에 위니아만도의 꼬리표를 완벽하게 떼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박 대표가 올해 대유위니아의 종합가전 도약을 선언했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유위니아(옛 만도공조)의 전신은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회사인 만도기계(현 만도)의 공조사업부로 1995년 '딤채'라는 브랜드로 김치냉장고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양성운기자

이재용 부회장 모바일 결제 시장 공략 집중

미국 카드사 CEO 만나 '삼성페이' 협력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바일 결제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 출장을 떠났던 이 부회장이 미국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삼성페이'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일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수요 사장단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비즈니스 위크 포럼 기간에 이 부회장이 별도로 미국 주요 카드업계 CEO들과 사업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갤럭시S6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탑재된 만큼 사업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페이는 애플 등 경쟁사의 전자 지불 기술과는 달리 근거리무선통신(NFC)와 마그네틱 보안전송(Magnetic Secure Transmission, MST), 바코드 방식을 모두 지원해 전 세계 약 3000만개 매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 올 상반기 갤럭시S6를 통해 국내외에서 공식 서비스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페이 활성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지원에 나선 셈이다.

관련 이날 이 부사장은 상반기 공개 채용 규모와 계열사별 구조조정 진행상황도 언급했다. 이 부사장은 "올해 공개 채용 규모와 관련해서 그룹 차원에서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별로 경영현황과 실적을 고려해서 (채용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며 "예년 올해도 식년 못지않게 경영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룹 계열사별로 진행중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계열사가 판단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는 곳은 계열사별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삼성물산이 희망퇴직에 이어 권고사직을 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인력 감축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채신화기자

LG, 슈퍼프리미엄 스마트폰 내놓는다

글로벌 3위 굳히기 위한 전략 공개

LG전자가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G시리즈를 능가하는 슈퍼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진) 사장은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시리즈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제품을 기획하고 있다"며 "공개 시점은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올 한해 스마트폰 연평균 성장률의 2배에 육박하는 20%대 매출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프리미엄 시장에 안착한 G2, G3의 인기가 G4로도 이어진다면 의미 있는 3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LG전자는 'G3'와 'G 플렉스2' 등 G 시리즈에 역량을 집중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S,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G시리즈보다도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한 단계 높은 이른바 '슈퍼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보급형 제품도 기존 L시리즈(3G), F시리즈(LTE) 등 보급형 라인업을 '마그나(Magna)', '스피릿(Spirit)', '레온(Leon)', '조이(Joy)' 등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 또 '마카', '와인스마트'와 같은 소비자 맞춤형 특화폰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그룹내 관계사들과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카메라 분야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아날로그 감성을 더한 쉐어러블 라인업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정혜인기자

삼성 북미 LED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 인수

삼성전자는 미국의 LED(발광다이오드) 상업용 디스플레이(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업체인 '예스코 일렉트로닉스(YESCO Electronics)'를 인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예스코는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회사로 1988년 설립된 LED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문 회사다. 제조, 연구개발(R&D), 서비스 전반에 걸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옥내·옥외용 LED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LED 디지털 사이니지는 도심의 큰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등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다.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런던 피카딜리 광장의 옥외광고판을 비롯해 미국 라스베가스의 윈 호텔, 코스모폴리탄 호텔, 아리아 호텔 옥외 대형 광고판 등이 예스코의 작품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기반의 실내용 제품으로부터 옥외용 대형 LED 상업용 디스플레이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군을 구비함으로써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석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LED 기반 상업용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전자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사이니지의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신화기자

삼성 지펠 푸드쇼케이스 스파클링 냉장고 출시

삼성전자는 '지펠 푸드쇼케이스' 냉장고에 탄산수 제조 시스템을 적용한 '지펠 푸드쇼케이스 스파클링' 냉장고 2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 지펠 푸드쇼케이스는 냉장실을 인케이스와 쇼케이스로 나눈 수납 방식을 적용해 음식과 식재료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으며 5개의 가족 맞춤형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냉장고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지펠 푸드쇼케이스에 3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단계별 탄산 농도를 기존 제품보다 한층 강화한 탄산수 제조 시스템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탄산음료 수준의 톡 쏘는 청량감을 즐길 수 있다.

또 탄산가스 실린더 체결 부위를 도어 외부인 디스펜서 바로 옆에 채용해 소비자들이 도어를 열지 않고도 쉽고 간편한 실린더 교체가 가능하다. 지펠 푸드쇼케이스 스파클링 냉장고는 786ℓ 용량에 2종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각각 295만원과 339만원이다.

/정혜인기자

구본준 공들인 자동차 부품사업 성과 빛났다

LG전자, 폭스바겐·벤츠 등 글로벌 협력 강화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신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육성해온 자동차 전장부품사업이 차차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3일(한국 시간)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열린 '2015 제네바 모터쇼'에서 폭스바겐그룹의 이탈디자인 쥬지아로가 공개한 자율주행 콘셉트카 '제아(Gea)'에는 LG전자의 전장부품이 사용됐다. LG전자가 제아에 공급한 전장부품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스마트워치, 주행램프, 카메라 등 총 7종이다. 이번 협업은 자동차 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 LG전자가 부품과 기술을 공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LG전자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점이 눈길을 끈다. LG전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5'에서도 아우디와 협업해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LTE'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을 시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LG전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은 차량 전방의 위험을 관찰하고 교통정보를 수집해 차량을 제어하는 무인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다.

◆계열사간 시너지 통해 성장 가능성 높여

전장부품사업은 LG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2013년 7월 각 사업부별로 흩어져있던 관련 사업을 통합해 VC(Vehicle Components)사업본부를 신설했으며 지난해 6월 커넥티드카 개발연합 'OAA(Open Automotive Alliance)'에 가입했다.

폭스바겐 그룹의 디자인하우스 '이탈디자인'이 LG전자와 기술 협업을 통해 제네바 모터쇼서 선보인 자율주행 콘셉트카 '제아' /LG전자 제공

특히 구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구 부회장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2015에서도 자동차 업체 부스를 집중적으로 둘러봤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터 제체 회장과 만나 협력 관계를 논의한 바 있다.

현재 VC사업본부의 실적은 다른 사업부보다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LG전자 VC사업본부는 지난해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두자릿수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업계에서는 LG전자 VC사업본부가 다양한 차량용 부품 제품을 통해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혜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LG그룹 차원에서 전장부품 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고 그 핵심 역할을 LG전자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VC사업부는 현재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매출을 주력으로 전년대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점차 차량용 공조, 모터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hiljumo0404@metroseoul.co.kr

현대로템 차량 안정성 美 언론 '극찬'

현대로템이 제작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납품한 열차가 최근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나, 차량에 장착된 충돌흡수장치로 인해 탑승객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현대로템과 현지 외신에 따르면 2월 24일 오전 5시께(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60마일 가량 떨어진 옥스나드(Oxnard)역에서 카마릴로(Camarillo)역 방향으로 운행중이던 현대로템 이층객차와 기관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열차의 객차 4량이 탈선하면서 전복됐다. 열차에는 승객 48명과 승무원 3명이 타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됐으나 차량에 장착된 충돌에너지 관리 시스템(Crash Energy Management·CEM)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사고 열차는 2011년 2월 현대로템이 제작해 납품한 이층객차로, 운영사인 메트로링크사가 안전성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충돌에너지관리 시스템(CEM)을 장착해 납품된 차량이다. 열차 전두부에 설치된 CEM은 열차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를 차체에 전달하지 않고 자체 흡수하는 장치로 이번 사고 열차의 객차 3량에는 CEM이 모두 적용됐다.

/김태훈 기자 fun@

6년만에 선보이는 올 뉴 투싼, 사전 계약

U2 1.7 엔진 모델 추가…만족도 극대화 노력

현대자동차㈜가 4일부터 전국 현대차 영업점을 통해 이달 중순경 출시 예정인 올 뉴 투싼의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제네바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한 올 뉴 투싼은 2009년 이후 6년만에 선보이는 3세대 모델이다. 강인하고 대담한 디자인에서부터 탁월한 주행 성능과 안전성에 이르기까지 현대차의 첨단 기술력을 집약시킨 차세대 SUV다.

현대차는 올 뉴 투싼 사전 계약을 실시하면서 올 뉴 투싼에 적용한 최첨단 안전 기술과 편의사양을 대거 공개했다.

올 뉴 투싼은 선행 차량의 급정지는 물론 전방 장애물, 보행자까지 감지해 추돌 예상 상황에 적극 개입하는 자동 긴급제동장치(AEB)를 국내 SUV 최초로 적용했다. 후방감지 레이더를 통해 사각 지대 및 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하여 경보하는 스마트 후측방 경보장치(BSD)가 있다. 또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 이탈 시 경보를 울리는 차선이탈 경보장치(LDWS) 등 최첨단 고급 안전 기술을 적용해 주행 안정성과 운전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올 뉴 투싼에 ▲주차공간을 탐색한 후 운전자에게 브레이크 페달 및 변속기 조작을 안내하며 스티어링휠을 자동 제어하는 주차조향 보조장치(SPAS) ▲스마트키를 지닌 채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트렁크 문이 열리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개별 공기압이 표시 가능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이와 더불어 올 뉴 투싼은 차체 기본 구조 혁신 및 초고장력 강판 비율 확대,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등 개선된 안전 장비 적용으로 국내는 물론 북미, 유럽 등 전세계 충돌 안전도 평가 최고등급 성능을 확보하여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회사 연구소 평가 기준)

아울러 현대차는 기존 R2.0 엔진 외에 다운사이징 엔진인 U2 1.7엔진을 추가해 다양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U2 1.7엔진 모델에는 두 개의 클러치가 번갈아 작동해 민첩한 변속 반응 속도와 탁월한 연비 개선 효과가 있는 7단 DCT(Double Clutch Transmission)를 적용해 역동적인 주행감과 고연비를 모두 충족했다. 올 뉴 투싼의 판매가격은 ▲U2 1.7엔진 모델은 2340만~2600만원(7단 DCT 기준) ▲R2.0 엔진 모델은 2250만(6단 수동변속기 기준) ~ 2970만원(6단 자동변속기 기준)이다.

/김태훈 기자 fun@

토요타 프리우스, 12년 연속 컨슈머리포트 선정

글로벌 누적판매 300만대를 넘어선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미국 최대 소비자전문지 컨슈머리포트(http://www.consumerreports.org)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최고의 모델(10 Top Picks of 2015)평가에서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대명사 '프리우스'가 12년 연속 '최고의 친환경차(Green Car)'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컨슈머리포트는 매년 로드테스트 점수에 의한 퍼포먼스, 컨슈머리포트 연구센터가 조사한 예상신뢰도순위, 정부나 보험 기관의 인전성 검사를 기준으로 차량을 평가, 10개 세그먼트 별 최고 모델을 선정한다.

프리우스는 이번 '친환경차' 부문에서 12년 연속, 이전 2회를 포함하면 총 14회의 최다 선정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김태훈 기자

한국타이어, '고액납세의 탑' 수상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국세청이 주관하는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하며 성실 납세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사회 전반에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타이어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훈 기자

통신기술 수출 최전선 나선 LG유플

MWC서 카타르 이동사업자와 홈IoT 협약 양해각서

LG유플러스가 통신기술 수출 최전선에 나섰다. 핀테크와 사물인터넷(IoT), LTE 구축 노하우 등 기술 전수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카타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오레두'와 홈IoT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HD급 화질로 어두운 실내와 야간에도 또렷한 모습을 찍고 10일간 별도 저장장치 없이 찍을 수 있는 '맘카2' 등 LG유플러스의 가정용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카타르에 수출하는 내용이다.

LG유플러스가 오레두에 기술을 전수하려는 이유는 이번 협력을 통해 중동과 동남아 통신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에 본사를 둔 오레두는 인도네시아의 '인도샛', 이라크의 '아시아셀'을 비롯해 알제리, 튀니지, 쿠웨이트, 싱가포르, 라오스 등에서 통신사를 운영 중이다.

이와 별도로 LG유플러스는 이번 MWC에서 인도네시아 재계 3위인 시나르마스그룹의 통신사 '스마트프렌'에 LTE 이동통신 서비스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과 시나르 마스 그룹의 프랭키 오엑스완 위자자 회장(오른쪽)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G유플러스 제공

먼저 면담을 요청한 쪽은 스마트프렌이지만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 통신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굳이 면담 요청을 미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TE 서비스 성공 사례를 스마트프렌과 공유하고 사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자람은 미러링 서비스인 '카링크'의 해외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스마트폰의 정보를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모니터에 띄워주는 간단한 장치로, 큰 비용 부담 없이도 스마트카를 구현할 수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 LG유플러스는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바탕으로 손 쉽게 스마트폰 결제를 할 수 있는 '페이나우'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MWC에서 LG유플러스의 IoT·LTE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가 더 많은 나라들과 사업협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usun@metroseoul.co.kr

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원자력 협력 MOU 서명식'에서 사우디아라비아 SSEM사 오마르 A. 한자 대표(왼쪽),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중간), 효성 조현상 전략본부 부사장(오른쪽)이 사우디 아라비아 원전 건설의 전력 기자재 공급을 지원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효성 제공

"사우디 전력시장 공략 강화"

오일머니 물꼬 튼 조현상 효성 부사장

효성이 2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시장 공략에 나섰다.

효성과 펌프 전문 계열사인 효성굿스프링스(주)는 3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사우디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사우디 SSEM사 오마르 A. 함자 대표와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 효성 조현상 전략본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MOU는 효성과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전력 EPC 업체인 SSEM, 효성굿스프링스와 사우디 최대 민간 기업으로 펌 구조물 제조·무역업체인 자밀 시가 각각 체결한 것이다.

MOU 체결은 우리 정부의 사우디 원전건설 프로젝트 수주 활동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전력 기자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우디는 전력 수요량이 현재 45GW에서 2040년 약 3배인 120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40년까지 약 18GW의 원전 설비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르면 2016년 우선 2기 호기를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이번 MOU 체결로 총 2조원 규모의 전력보조기기 중 초고압변압기와 차단기, 전동기, 비상디젤발전기, 펌프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 사우디 전력 시장 공략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효성은 향후 정부가 사우디 원전 건설을 수주할 경우 한국전력 등과 사업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효성은 지난 2009년부터 카타르에 총 4500억원 규모의 변전소 EPC 프로젝트를 수주 및 운영하는 등 중동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서승림기자 (mman)@

SK텔레콤 'BE-ME 플랫폼' 첫 선

이용자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사이버 비서 서비스가 상용화된다.

SK텔레콤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적시 타이밍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인텔리전스 플랫폼(BE-ME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사이버 비서 서비스 '에고 메이트(Ego-Mate 가칭)'를 MWC 2015에서 처음 선보였다.

'BE-ME 플랫폼'은 SK텔레콤 독자 개발한 '인텔리전스 알고리즘'을 탑재해 정보 입력 없이 이용자 위치정보와 앱 이용정보 등 일상적 패턴을 추론한다. SK텔레콤은 반복되는 정보 분석과 추론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BE-ME 플랫폼 기반 지능형 비서 서비스 에고 메이트의 일정관리, 라이프 로그, 원격 스마트폰 관리 세 기능을 선보였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오는 9월 정식 상용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BE-ME 플랫폼이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할 때 폭발적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오는 6월 API를 일반 개발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유선준기자

KT, 노키아와 손잡고 'LTE-M' 선봬

세계 최초로 시연 성공

KT는 노키아와 함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롱텀 에볼루션(LTE)을 기반으로 한 IoT 네트워크 기술인 'LTE-M'을 세계 최초로 시연하며 다가오는 사물인터넷(IoT)와 5세대(5G) 시대에 대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LTE-M은 LTE를 이용해 각종 사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주는 기술이다. LTE-M은 LTE 커버리지 내의 모든 기반시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5G 시대 IoT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솔루션이다.

센서가 부착된 사물들이 LTE 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사물들을 원격 제어할 수 있으며 상호통신으로 사물 간 제어도 가능하다. 특히 별도로 장비를 구축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ZigBee와 같은 기존의 IoT 네트워크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다.

양사는 MWC에서 시연하는 ▲가로등 제어 ▲주차장 관리 ▲계량기 검침 ▲교통정보 수집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생활 밀착형 원격 제어 솔루션뿐만 아니라 CCTV와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IoT가 5G의 핵심기술이 되면서 기존 이동통신망을 통한 광범위한 기기간 연결은 물론 이동 단말과의 통신도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KT·노키아 양사 최고경영자(CEO)는 IoT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사업협력을 제안하고 IoT 선점에 걸친 단계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유선준기자

내수침체 속 김영란법, 유통업계 '직격탄'

백화점 선물·상품권 수요 감소 ·· 주류업계, 유흥시장 위축 타격
호텔 식음료 매장도 울상 ·· 자영업자 음식점 창업 감소도 우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법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국민 체감 경기가 저가인 상황에서 공직자와 배우자는 물론 사학교원,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장이 정체된 백화점업계는 김영란법에 따른 고가(高價) 선물과 상품권 판매 감소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그나마 설과 추석 장사, VIP 구매 등이 매출을 견인해 왔으나 상품권이나 고가 선물의 주 고객인 법인들과 VIP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50만원이 넘는 제품을 설과 추석에 두 번 선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저성장 속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의 30~40%는 법인이 구입한다.

과거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됐을 때 가장 긴장했던 주류 업계도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접대문화가 수그러들며 고가의 위스키나 와인 등의 수요처인 유흥시장 위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급 술집의 경우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데 몇 번의 접대만으로도 1인당 100만원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스키나 와인은 선물 수요가 많은 품목이기도 하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 몸을 사리다 보면 고급 술집이나 음식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어 유흥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도 한숨을 쉬었다.

외식업계도 '설상가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격대가 높은 레스토랑·고깃집 등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의 시행으로 음식점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된 마당에 소비 심리까지 더욱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음식점 창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호텔업계도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다. 특급호텔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호텔 식음료 매장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으며 골프장 주변 지역 상권 침체도 우려된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한 번만 골프를 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지금도 골프에 대한 시선이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주말 골퍼들은 더욱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레저산업과 박람회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김영란법이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내수 경기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식사와 골프 접대 등 후원 명목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티몬, 3초만에 결제 '티몬페이' 도입

소셜커머스 티몬은 앱에 최적화된 간편결제시스템 '티몬페이'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티몬 앱이나 PC상에서 최초 1회 카드정보와 6자리 개인인증번호를 등록하면 기존 카드 결제시 필요했던 '액티브X' 설치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복잡한 과정없이 비밀번호만으로 단 3초만에 결제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환경에서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우선 적용됐으며 iOS 버전은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티몬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간편 결제서비스들과 달리 별도의 카드사 앱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티몬페이 최초 설치 시점부터 신한·현대·삼성·국민·비씨·하나·농협·시티 등 대부분의 모든 카드사를 앱 내부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또 LG유플러스의 계이나우 보안체계를 적용하고 보안키패드 앱 위변조 백신 등을 자동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갖췄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제철 맞은 꽃게·명게 드셔보세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수산매장에서 도우미들이 꽃게와 멍게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갤러리아명품관, 남성고객 위한 맞춤 주문 서비스

갤러리아명품관은 오는 8일까지 맞춤 주문 제작 서비스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스테파노리치·제냐·캐나리·카튼·브리오니 등 11개의 하이엔드 수트 브랜드가 참여해 특별 제작 수트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알마니꼴레지오니의 경우 4일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본사 소속 제작자(테일러)가 방한해 맞춤 서비스를 선보인다. 제냐에서도 예약을 통해 한국 본사 전문 테일러가 맞춤 정장을 만든다. 남성 클래식 편집숍 란스미어는 반락(Van Laack) 셔츠의 MTM(Made to Measure) 상품의 사이즈별 패턴을 통해 수치를 개인에 맞게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형식으로 맞춤제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더불어 카튼·브리오니는 맞춤 고객에게 셔츠를, 잠미라사는 브로피아나 제냐 에스코리알 원단 정장 맞춤 고객에게 맞춤 셔츠와 조끼 또는 악어벨트를 증정한다.

쁘띠첼, 냉장 디저트 '스윗롤' 3종 출시

CJ제일제당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쁘띠첼이 생크림으로 만든 냉장 디저트를 '스윗롤' 3종을 출시했다.

쁘띠첼 스윗롤은 백화점이나 디저트 카페, 전문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도지마롤과 같은 고급 생크림 콘셉트의 제품이다.

프레시멜로·딜리버리얼·핑크스노로 3종, 각 2480원.

유통가 "화이트데이 특수 잡아라"

화이트데이(14일)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관련 마케팅을 앞다퉈 펼친다.

롯데마트는 화이트데이의 초콜릿과 소프트 캔디 준비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렸다. 초콜릿 DIY(Do It Yourself) 상품도 온라인몰을 통해 선보였다. 주요 품목으로 길리안 씨쉘 초콜릿(250g)을 기존 판매가보다 30% 저렴한 9800원에, 페타 폭산 폭산 제리(161g)는 25% 가량 할인된 2980원에 판매한다.

더불어 14일까지 화이트데이 행사 상품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롯데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하고 11일까지 3만원 이상 구매시엔 전국 무료배송 서비스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편의점 씨유(CU)는 실속형 남성 고객을 위해 길리안 기프트백(1만400원) 등 인기 초콜릿 10가지를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BC카드로 14일까지 행사 상품을 1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 횟수에 상관없이 1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옥션은 12일까지 인기 브랜드 사탕·수입과자·초콜릿 등을 할인 판매하는 '해피 화이트데이 기획전'을 연다. 견과일 식감의 오리온 젤리데이(40g/650원), 커피와 잘 어울리는 터키 전통 젤리 터키쉬딜라이트(125g/4700원), 코끼곰젤리로 유명한 독일 하리보의 골드베렌 곰젤리(980g/1만6500원) 등을 내놓았다.

호텔업계도 화이트데이 특수를 겨냥해 다채로운 패키지를 내놓았다. 서울신라호텔 바&라운지 더 라이브러리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스프링 블러썸 패키지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드라피에 샴페인 2잔을 추가로 제공한다. 스프링 블러썸은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와인 3종과 향긋한 꽃지와 함께 봄날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다.

우리은행
홈메이드
프로젝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성하세요
국민주택기금 총괄은행, 우리은행이 함께 합니다

아모레·LG생건 '쿠션 화장품' 주도권 경쟁

LG 다음달 신소재 적용 제품 출시 · '원조' 아모레 "카피 제품 막아라" 고삐

쿠션 화장품 시장을 두고 원조격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과의 주도권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이 다음 달 신소재로 만든 쿠션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제기한 쿠션 특허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쿠션제품은 NRSBR 신소재의 스펀지를 삽입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LG생활건강은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기존의 스펀지 보다 뚫린 구멍이 미세해 밀도가 높고 뭉치지 않는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수분 함량도 보강해 균일한 사용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우선 숨과 이자녹스에서 해당 소재를 적용한 쿠션 신제품을 내놓고 향후 다양한 브랜드로 확대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모든 화장품 업체가 그렇듯이 새로운 형태의 신제품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원조인 아모레퍼시픽은 랑콤·디올 등 글로벌 업체도 쿠션 화장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피 제품 출시를 저지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실 조직 개편을 단행, 법무팀과 지식재산팀을 각각 법무사업부와 지식재산부로 승격시켰다. 지식재산부는 특허팀과 상표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기술과 관련 12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을 출시한 이후 라네즈·헤라·마몽드·설화수 등 자사 13개 브랜드로 쿠션 제품 출시를 확대해 지난해에만 국내외 시장에서 2500만 개 이상을 팔았다. 금액으로 약 9000억원어치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들어 2개 브랜드에서도 신제품을 내놓았다. 글로벌 컬러 시스템을 통해 5가지 호수로 출시한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에 이어 마몽드에서 '커버 파우더 쿠션'도 선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쿠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 화장품 시장에서 중요한 카테고리로 급부상하면서 몇 군데에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타사에서 출시하는 제품은 분석을 통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브랜드는 물론 글로벌 업체까지 신제품을 출시하며 쿠션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일부 제품은 초반 물량이 매진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랑콤은 지난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블랑 엑스퍼트 쿠션 컴팩트'가 출시 3일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초도 물량이 매진되자 이번 주 중 추가 물량을 투입하고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에이블씨엔씨는 한정 수량으로 4800원에 선보인 미샤 M매직쿠션이 매진되는 등 호응을 얻자 정가 1만2000원의 리필 에어 퍼프도 4500원에 한정 수량 판매키로 했다.

/김수정기자 kst0615@metroseoul.co.kr

한 벌로 두 계절 입는 아웃도어

아웃도어 업계가 실용적인 제품으로 알뜰족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봄 기온이 높아지고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두 계절을 아우를 수 있는 제품들이 간절기 시즌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탈부착 가능한 내피가 있는 제품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엠리밋 '3 IN 1 마르셀 재킷'은 바람막이 외피와 탈부착이 가능한 내피로 구성된 쓰리인원 재킷이다. 외피인 바람막이 재킷은 MEH(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가 자체 개발한 기능성 발품 소재 '윈드엣지'를 사용했으며 내피에는 다운보다 가볍고 따뜻한 3M 신슐레이트를 충전재로 사용해 보온성을 높였다.

블랙야크의 '레오파드 재킷'은 고어텍스 재킷과 패딩 내피가 분리돼 날씨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착장이 가능하다.

컬럼비아의 '브레이크 디아이스 재킷'도 내외피가 구분되는 2 in 1 재킷이다. 아웃도어 활동 상황에 따라 하나 또는 레이어드로 착용하기 좋다.

일교차가 큰 봄에는 경량 다운을 코트나 수트와 함께 착용하면 된다. 또 날씨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밀레 '스포츠라이트 재킷'은 몸판 사이드 부분과 소매에 신축성이 우수한 우븐스판 원단을 사용해 착용감을 높인 하이브리드형 재킷이다. 자체 개발 소재인 '윈드 에지'를 적용해 차가운 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충전재로 덕다운을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보온력이 우수하다.

노스페이스의 'VX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재킷'은 기후와 체온 변화에 따라 최적의 보온성을 제공하는 고기능성 충전재와 경량 원단을 혼용해 기후 대응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노스케이프가 출시한 1973 오리진 플리스도 단독으로 입거나 겹쳐 입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엠리밋 사업부장 박용학 상무는 "불황과 함께 확산된 실용주의 소비 트렌드의 영향으로 여러 계절을 아우를 수 있는 제품의 인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외식·식품업계 생딸기 활용 신제품 출시 봇물

3월 본격적인 딸기 시즌이 돌아오면서 계절 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외식·식음료업계의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딸기 농사가 풍년을 이뤄 출하량이 많아지면서 딸기 메뉴도 다양해져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3월 이달의 맛으로 우유 아이스크림과 상큼한 딸기가 어우러진 '우유에 빠진 딸기'를, 이달의 케이크로 '딸기 마을'을 출시했다.

'우유에 빠진 딸기'는 설목장 유기농 우유로 만든 밀크아이스크림에 딸기 과육과 딸기 리본이 들어있다. 출시에 맞춰 그룹 샤이니가 출연한 TV-CF도 새롭게 선보였다. '딸기 마을'은 딸기를 콘셉트로 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상단에 산딸기가 올라 있다. 총 9가지 맛의 12조각으로 구성된 조각 케이크로 이달의 맛과 함께 배스킨라빈스의 인기 맛을 모두 맛볼 수 있다.

베이커리 뚜레쥬르는 인기 애니메이션 '라바' 캐릭터를 활용한 '딸기 라바봉봉'을 출시했다. 신선한 딸기 생과일 주스를 강렬한 레드 컵에 제공해 상큼하고 건강한 맛은 물론 보는 재미까지 더한 것이 특징이다. 크리스피크림도넛은 신선한 제철 딸기의 맛을 그대로 살린 '리얼 스트로베리' 도넛 4종과 타르트 도넛 케익 2종, 음료 2종을 4월15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전개하는 아메리칸 그릴 앤 샐러드 애슐리는 최근 신선한 제철 딸기의 맛과 영양을 가득 담은 봄 신메뉴 7종을 출시했다. '베리 메리 스트로베리'라는 콘셉트로 생딸기 생크림 케이크, 상그리아, 젤리믹스 베리베리초콜릿피자, 리코타치즈부루스케타, 파나코타, 위핑돈육 딸기드레싱 등 딸기 본연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춰 재해석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편의점 GS25는 제철 과일 딸기를 이용한 딸기샌드위치를 출시했다. 5월까지만 판매하는 한정상품으로 식빵에 생딸기와 생크림, 와인에졸을 토핑한 디저트용 샌드위치다.

정월대보름 신풍속도… '부럼' 다양하게 즐겨볼까

정월대보름(5일)을 맞아 색다르게 '부럼'을 즐기는 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부럼'은 부스럼에서 유래된 말로 정월대보름 이른 아침에 한 해의 건강을 바라는 뜻에서 견과류 등 딱딱한 음식을 이로 깨 먹는 풍속이다. 단단한 견과류는 슈퍼푸드, 파워푸드라는 별명에 걸맞게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건강식품이다. 하지만 다소 딱딱한 식감으로 즐겨 먹기를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런 소비자를 위해 더욱 더 맛있고 건강하게 부럼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매일유업의 매일바이오 플레인은 견과류의 딱딱한 질감을 요거트의 부드러움으로 보완, 편안한 식감으로 '부럼'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우유에서 유래된 유당 이외에 설탕이나 합성의 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대신 생우유 95%에 유고형분을 더해 진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으로 다양한 곡류와 곁들여 먹기 좋다. 대용량 제품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

매일유업 상하치즈의 '한입에 고다' 치즈는 고소한 네덜란드산 정통 고다 치즈를 함유하고 있어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한입에 쏙' 먹기 좋은 큐브 형태로 호두, 땅콩 등 견과류와 섞어 크래커 등에 곁들이면 가벼운 간식이나 와인 안주로도 그만이다. 쫄깃하고 달콤한 호박엿에 땅콩, 호두, 잣을 더해 만든 '견과류 호박엿'은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다. 잔쌀 호박믹스, 녹차맛 잔쌀 호박믹스, 우리밀 잔쌀 호박믹스, 자일로스 잔쌀 호박믹스 등 총 네 가지로 준비됐다.

석면 해체·제거 안전성 높인다

안전보건공단, 이달부터 소규모 현장 대상 컨설팅 지원

정부가 이달부터 소규모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을 시작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 30명을 선발, 연말까지 전국 5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은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약 1만6000개소의 소규모 현장은 공사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석면작업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전공자 등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컨설턴트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밀폐조치와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하게 된다.

특히 공단은 작업계획의 적절성과 작업기준 준수, 장비의 성능과 사용, 그리고 보유인력 관리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현장에서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게다가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지원 등을 강화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nu 38@metroseoul.co.kr

진짜 커피맛 찾는 이들의 이야기

커피 러버스 핸드북 출간

커피를 만들기 위한 정보는 많다. 하지만 커피 애호가였던 장 자크 루소처럼 '커피는 기쁨을 주는 향수'라고 말할 수 있는 완벽한 커피를 제대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에 커피 입문자는 물론 바리스타와 커피산업 종사자를 위한 책을 소개한다. 바로 영국 커피 매거진 브랜드 퓨처(Future)에서 라이프 분야를 담당하는 저널리스트 매트 로빈슨이 쓴 '커피 러버스 핸드북'이다.

그는 커피 전문가이자 열정적인 애호가로 좋은 커피에 관한 정보를 집요하게 취재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커피 입문서로의 기본 정보를 충실히 다루고 있다. 커피의 역사와 특성, 원산지별 특징과 생두의 차이, 그리고 로스팅과 블렌딩 기법 등을 사진·일러스트와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세계 방방곡곡을 발로 뛰며 커피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또 저자가 선정한 10대 커피 도시와 96개의 커피 명소 리스트는 커피 애호가들이라면 꼭 방문하고 싶은 열망과 탐구욕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자신만의 노하우로 진짜 커피맛을 찾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황재용 기자

강강술래, 정월대보름 맞아 '한우' 할인

도서 증정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이달 15일까지 '우리 한우 먹고 소원빌자' 이벤트를 벌인다.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한우세트(한우양념구이560g+한우불고기500g)를 41% 할인된 6만5000원에 판매한다.

한우사골곰탕박스(350㎖·10팩)는 약 50%, 철판한우떡갈비(360g X 3박스, 4만6200원)는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가정간편식 신상품 갈비탕선물세트(500㎖ 7팩, 14만원)와 육개장선물세트(500㎖ 7팩, 14만원)는 각각 30% 할인가에 준비했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 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더 늙어보이는 여자 나이 어려 보이는 여자", "부동산 상식사전" 등 경영 추천도서를 증정한다.

/김수정 기자 ksj8@

독감바이러스 제거 효과 갖춘 공기청정기 '에어비타Q'

에어비타(대표 이형수)는 공기정화 기능은 물론 독감의 원인 물질인 독감바이러스(H5N1)를 제거하는 신제품 '에어비타Q'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크기가 작아 콘센트가 있는 공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다량의 음이온을 방출시켜 공기 중에 있는 유해물질과 세균을 99.9% 제거한다. 특히 독감바이러스 감소 시험 성적서를 통해 독감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능력을 증명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에어비타Q는 별도의 필터 교체 없이 물 세척만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필터형 공기청정기 제품의 경우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교환주기를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에어비타Q는 간단한 물 세척만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다. 24시간 내내 사용해도 한달 전기료는 100원 미만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에어비타Q는 회전 다이얼을 돌려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일반 모드로 사용하다가 살균과 탈취가 필요할 때는 살균 모드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의 에어비타 홈페이지(www.airvita.net) 및 전화(1588-7025)

/정혜인기자 hjung0404@

인제대 서울백병원 '파킨슨병 치료법' 강좌

인제대 서울백병원이 오는 10일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파킨슨병 치료법'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김지영 서울백병원 신경과 교수가 강의를 맡아 파킨슨병 초기에 나타나는 이상운동 증상과 치료법 등의 정보를 소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강의에 앞서 혈당과 혈압 등 건강상담도 한다. /황재용 기자

동국제약, 여자 야구팀 '안양산타즈' 후원

동국제약(회장 권기범)이 지난 2일 여자야구팀 '안양산타즈'에 점퍼 등 야구용품을 전달했다. 2010년 창단한 안양산타즈는 20대부터 50대까지 야구를 좋아하는 이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여자야구팀이다.

동국제약은 자사의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의 이름으로 안양산타즈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번 후원으로 선수들은 센시아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훈련과 경기를 치르게 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한국 여자야구가 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심과 지원이 적은 것이 안타까워 작게나마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센시아는 성인의 약 50%가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중년질환인 정맥순환장애 치료제다. /황재용 기자

4조 오일머니 업은 검단신도시 봄 오나

387만㎡에 기업도시 건설…"2·3차 투자로 훈풍 기대"

인천시가 4조원의 오일머니를 투자 받아 그동안 정체됐던 검단신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인근 지역에서는 부동산 활기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두바이투자청과 협약, 약 4조원 규모의 '퓨처시티'를 검단지역에 건설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일부 구역에 대한 투자방식이 아닌,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1단계 지역 약 387만㎡를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단신도시개발은 서구 검단동 일대(당하동·원당동·마전동·불노동·대곡동) 부지 약 1118만㎡를 3개 구역으로 나눠 토지 분양, 단지 조성 공사 등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2009년 사업에 착수한 검단신도시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 대 50으로 참여해 총 9조32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 7만800가구, 17만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2007년 정부의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선정되며 추진됐던 신도시개발은 국제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 1월 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 1월 기준, 개발지역 토지의 94%, 지장물의 84%까지 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사업착수 후 4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고 이는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투자금과 함께 인천시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시는 4조원 규모의 퓨처시티까지 들어설 경우 진척 없던 신도시개발사업은 물론 발목 묶였던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까지도 훈풍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기존의 검단신도시개발사업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정안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협의 중에 있고 2주 뒤 본계약을 맺고 나서 TF팀을 꾸릴 예정"이라며 "TF팀에는 청와대 담당자도 포함돼 긴밀히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시계획 변경 세부안에는 많은 것이 담길 것"이라며 "청라지구와 같이 경제자유지구로 변경되는 안도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두바이투자청과 협의시 인천시에서 제시한 도시 중에 루원시티도 포함돼 있었다"며 "직각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2·3차 등 지속적인 투자 유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추가 투자 의향을 내비친 다른 국가들도 상당수 있고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이어 "4조원은 두바이투자청의 직접투자 금액만을 적은 것이다. 2차 투자는 글로벌 기업 유치, 3차 투자는 국내 기업 유치 등 구체적인 투자 유치 방안도 MOU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바이투자청이 국내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제주도는 스마트시티 유치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무산됐고 지난해에는 파주시에서 추진하다 사업을 접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2월부터 문서가 오고 가며 사업이 진행됐다"며 "두바이투자청에서 실질적인 힘을 지닌 주요인사들이 단 한번도 동참한 적이 없던 것과 반해 업무최고책임자(COO) 등이 앞선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분위기는 그 때와 상당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투자 소식에 인근 부동산 경기도 활기를 찾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검단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 이곳 상황은 최악인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본계약이 체결된 후 투자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검단지역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이번 투자 소식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다만 계획은 계획일 뿐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행되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또 "시에서 아파트 예상분양가를 3.3㎡당 약 9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다소 높은 편"이라며 "세종시 사례처럼 저렴한 분양가에서 시작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점차 올려가는 방식이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하늘기자 [illegible]

혁신학교 따라 집값 들썩

강남·목동 등보다 가격 저렴해 인기

#서울 상도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전모씨(42)는 길 건너편 혁신학교로 딸을 보내기 위해 맞은편 아파트로 이사를 바라다 결국 포기했다. 혁신학교와 맞닿아 있다는 이유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1억원이나 비쌌기 때문이다. 전씨는 "강남도 아닌데 혁신학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차이날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학기를 맞아 혁신학교로 통학 가능한 아파트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맹모(孟母)들의 치맛바람과 함께 8학군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학교 형태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고 자연스럽게 혁신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혁신학교인 보평초·중교로 배정되는 판교신도시 봇들마을 8단지 전용면적(이하 동일) 84㎡의 매매가는 8억7500만원이다. 반면 보평초·중교로 배정되지 않는 인근 백현마을 5단지 84㎡는 1억원 낮은 7억7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서정초교로 통학할 수 있는 서정마을 5단지의 84㎡ 매매가도 4단지(3억5500만원)보다 4500만원이나 비싼 4억원 수준이다. 5단지가 지난 1년간 3억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나 상승한 사이 4단지는 3억5500만원에서 5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혁신학교 입학 여부에 따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혁신학교 인근 분양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효성은 용인 서천동에서 이달 분양 예정인 '용인 효성해링턴 플레이스'가 서천초·중교까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강남이나 목동 등 전통적인 우수학군 지역은 매매나 전세 모두 가격이 너무 비싸 접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아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쿠웨이트 초대형 정유플랜트 착공 GS건설과 SK건설, 일본의 JGC 등 3개 회사가 참여하는 1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쿠웨이트 클린 퓨어 프로젝트가 지난 3일(현지시간) 착공에 들어간다. 착공 행사에 참석한 임병용 GS건설 사장(왼쪽 첫 번째), 최광철 SK건설 사장(왼쪽 세 번째), 하셈 아이 할-라파디 KNPC 수석부사장(왼쪽 네 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제공

현대건설, 광주 '힐스테이트 태전' 4월 분양

현대건설이 오는 4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서 '힐스테이트 태전 1·2차'를 동시에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40개동 전용면적 ▲59㎡ 1001가구 ▲64㎡ 208가구 ▲72㎡ 1260가구 ▲84㎡ 677가구 등 전체 3146가구 규모다.

3번국도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2017년 완전 개통)를 이용해 성남 분당까지는 20분대로, 신분당선 판교역과 여주역을 잇는 복선전철(2016년 개통 예정) 광주역을 통해 서울 강남권까지는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광주시의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 태전초와 광남중·고는 이미 개교해 있다. 1차와 2차에 각각 근린공원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태전 1차(좌), 2차(우) 조감도

현대건설은 경기도 광주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인 만큼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약 70%를 계층과 통풍이 우수한 맞통풍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내부는 4-bay 오픈형 주방으로 개방감을 높였다. 또 평면 선택제(일부 세대)를 제공해 입주민들이 보다 넓고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경기도 광주는 지난 5년간 3000여 가구 분양되는 데 그쳤고, 특히 소형 주택형의 공급이 부족했던 곳"이라며 "자동차 전용도로, 복선전철 등의 교통호재도 풍부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비열한 왕의 사위 연기 힘들었죠"

'순수의 시대' 강하늘

배우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그의 말보다 그가 보여주는 표정과 인상, 그리고 인터뷰어를 대하는 태도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기운이 오랜 여운과 잔상으로 남기도 한다. 그 오묘한 감정을 글로만 오롯이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 고민에 빠질 때도 있다. 강하늘(25)과의 인터뷰가 그랬다.

요즘 강하늘은 그야말로 '핫'하다. 지난해 드라마 '미생'에서 장백기 역을 맡아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는 최근 영화 '쎄시봉'에 이어 '순수의 시대'와 '스물'까지 3편의 영화를 연달아 선보이며 바쁜 홍보를 하고 있다. 대중과 언론의 끊이지 않는 관심 속에서 들뜬 기분이 들 법도 하다. 그러나 강하늘은 "단 것에 취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저는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어디 가서 억지로 웃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즘 저를 신경써주고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많이 겼는데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어요."

배우가 스스로를 솔직하다고 말할 때는 한번쯤 귀를 의심하게 된다. 작품마다 다른 연을 을 연기하는 배우만큼 자신을 잘 숨기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하늘의 말에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없었다. 인터뷰 동안 자신의 삶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다.

5일 개봉하는 '순수의 시대'에서 강하늘은 야비하고 비열한 인물인 김진을 연기했다. 조선 태조의 사위인 부마의 직책에 있지만 관직에 오를 수 없는 답답함을 거침없는 욕망으로 표출하는 인물이다. "순진과 순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강하늘은 그 차이를 잘 담아낸 시나리오에 끌려 '순수의 시대'를 선택했다.

"이미지 변신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김진의 자기이런 모습이 배우로서 재미있게 다가왔죠. 왕의 사위임에도 자기 욕망 하나 표현하지 못하는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김진이 이해는 됐지만 공감은 안 됐어요. 이해를 공감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김진의 행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될 일들이잖아요. 현실과의 괴리감이 커서 많이 힘들었어요."

욕망에 가득한 눈빛,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김진은 우리가 알고 있던 강하늘의 모습을 완벽하게 배반했다. 강하늘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여준 '엄친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도 그가 부족함 없이 자라왔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강하늘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 힘든 일도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웃으며 말했다.

배우를 꿈꾸기 시작한 것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강하늘은 중학교 때 교회 성극단 소품 팀으로 처음 연극 무대를 접했다. 모든 공연이 끝나는 날 스태프들이 나와 인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펑펑 울었다. "그때의 눈물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시원한 것도 서운한 것도 아니었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연극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 눈물은 강하늘에게 연극에 대한 꿈을 심었다. 그리고 그 꿈은 자연스럽게 무대 위에서 빛나는 배우로 향하게 됐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강하늘은 여전히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다. 배우가 무엇인지 늘 고민한다는 그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공부가 되는 작품을 고르며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다.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당당하게 스스로를 작가나 음악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배우로서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죠. 아직은 어린 만큼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배우라고 말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때는 배우가 무엇인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키이스트(메가박스 제공) 디자인/김아람

이해 됐지만 현실적인 괴리감

이 역할로 엄친아 이미지 '훌훌'

요즘 인기 당황… 늘 초심 생각

star bag

'어른 맞니' 음원 재능 기부

가수 **김예림**이 4일 '어른 맞니'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하고 음원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어른 맞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기부테인먼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곡으로 수익금은 재능꿈나무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中 영화 데뷔작 크랭크업

배우 **이준기**가 지난 3일 중국 영화 '시칠리아 햇빛아래' 촬영을 끝냈다.

자신의 SNS에 "정말 행복한 기억"이라며 소감을 남겼다. 그는 '시칠리아 햇빛아래'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끝까지 지키는 박준호 역을 맡았다.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모두 마치고 5일 귀국한다.

악녀 털고 '다정한 엄마' 변신

배우 **이유리**가 악녀에서 다정한 엄마로 변신한다.

tvN 새 금토드라마 '슈퍼대디 열' 측이 공개한 사진에서 이유리는 극 중 딸로 등장하는 아역과 함께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작진은 "'왔다 장보리' 속 악녀 이미지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열연 중"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13일 첫 방송.

데뷔 8년 만에 첫 차트 1위

그룹 **유키스**가 SBS MTV '더 쇼 시즌4'에서 데뷔 8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포미닛, 인피니트H를 제치고 이뤄낸 쾌거다.

유키스는 미니 10집 타이틀곡 '놀이터' 활동을 마무리하고 일본에서 발표할 새 싱글 '액션(Action)'을 준비하고 있다.

통기타 하나로 팝신 평정한 영국 청년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 8일 첫 내한공연··· "싸이, 내 무대 보러오세요"

"전 작은 키에 말을 더듬고 영국 건강보험에서 제공받은 커다란 안경을 쓴 주황색 머리의 이상한 꼬마였어요. 제 음악과 개성이 조화를 이뤄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빨간 머리에 얼굴을 뒤덮은 주근깨, 통통한 몸매의 영국 청년은 통기타 하나로 세계 관심을 제패했다.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23)이 오는 8일 서울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첫 내한공연을 연다.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쁩니다. 머무르는 동안 가능한 많은 음식점에 가고 싶어요. 무대엔 혼자 오르지만 관객과 소통하며 즐기고 싶어요."

그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제35회 브릿 어워드에서 정규 2집 ×(멀티플라이)로 올해의 앨범상과 최우수 영국 남성 솔로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앞서 1집 +(플러스)로 신인상과 최우수 영국 남성 솔로 아티스트상과 신인상을 받았다. 또 2집 수록곡 전부가 UK차트 100위 안에 오르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어린 시절 그는 고막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두 눈동자는 망막 버리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음악과 무대는 소통의 도구가 됐다.

"전 '정상'이라는 말에서 반대에 서있는 사람이었지만 음악으로 극복했죠. 그 때의 경험으로 지금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어쩌면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진저(빨간머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기본적으로 어쿠스틱 사운드를 추구하지만 퍼렐 윌리엄스와 협업하며 통기타는 잔잔한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기도 했다. 특히 쉴 새 없이 빠른 속도로 내뱉는 랩은 그의 음악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든다. 젊은 통기타 가수에게 으레 붙는 '제2의 제이슨 므라즈'라는 별명에 대해선 "매우 기분 좋은 칭찬"이라고 답했다.

최근 K-팝신에서도 그와 같이 통기타를 둘러 멘 젊은 가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함께 작업하고 싶은 한국 가수가 있을까.

"아쉽게도 싸이같군 아는 한국 가수가 없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더 알아볼 계획이에요. 싸이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의 신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이가 보고싶군요. 싸이에게 제 공연에 와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유지은기자 [illegible] metroseoul.co.kr

엠블랙 떠난 이준·천둥 "이젠 배우"

'풍문으로 들었소' '여자를 울려' 맹활약

그룹 엠블랙 출신 이준과 천둥이 연기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준은 엠블랙 멤버였을 때부터 배우로 두각을 보였다. 영화 '닌자 어쌔신'을 시작으로 '배우는 배우다'를 통해 주연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아이리스2' 이후 1년 만에 출연한 드라마 '갑동이'에선 사이코패스 역, '지난 미스터백'에선 젊어진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인을 짝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해 존재감을 보여줬다. 최근 소속사를 옮긴 후 첫 작품으로 SBS 월화극 '풍문으로 들었소'를 선택했다. 극도 위 반한 18세 영인상으로 분해 아빠 어른으로 홀로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부모님 말씀이 번번 잘 입고 살아온 여수록한 10대지만 연애에 눈을 뜬 후에는 할 말을 다 해 어른들을 뒷목 잡게 한다.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는 표현이다.

천둥은 본명 박상현으로 MBC 새 주말극 '여자를 울려'에 출연한다. 극 중 은수(이하라)의 아들 현서 역을 맡았다. 건강상 문제로 대학원을 휴학한 현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지만 조부모·어머니·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러나 마음이 여리고 가슴속에 상처가 있는 인물이다. 박상현은 앞서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소리' '네일샵 파리스'에 출연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자를 울려'를 통해 제2의 도약을 할 지 주목된다. 그는 "영광스럽다"며 "시청자가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연기를 배워 보이드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여자를 울려'는 '장미빛 연인들'의 후속 작으로 내달 중 첫 방송된다. /김숙현기자 [illegible]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18일 이운형문화재단 첫 음악회 사무엘 윤 등 무대

최근 포스코 특수강을 인수하며 특수강 업계 1위로 발돋움한 세아그룹의 고(故) 이운형(사진 왼쪽) 회장은 오페라 마니아였다.

생전 지인을 만날 때 마다 "이제 당신만 오페라를 알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오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라며 오페라 CD를 건넸던 그는 2000년 국립극장 산하에서 독립한 국립오페라단 초대 이사장을 맡아 후원회를 조직하고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는 등 13년간 국내 오페라 발전에 애정을 쏟았다.

고 이운형 회장 사무엘 윤

세아그룹은 2013년 고인의 뜻을 기려 '이운형문화재단'을 세웠다. 이후 이운형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원하면서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했다. 국내외 권위있는 콩쿠르 입상 경력이 있는 오페라 인재나 성악인 중 후원대상을 선정해 해외 유명 오페라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기획하거나 후원하기도 했다.

이운형문화재단이 고인의 2주기를 맞아 올해 뜻깊은 음악회를 마련했다. 오는 18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리는 '제1회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이다. 고인이 생전에 후원했던 첫 작품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과 마지막 작품 '팔스타프(Falstaff)'의 하이라이트를 비롯해 오페라와 유명 뮤지컬 넘버 등 대중들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무대로 꾸몄다.

사무엘 윤(오른쪽)을 비롯한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이운형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젊은 오페라 인재들이 만나 아름다운 앙상블을 선보이게 될 컬래버레이션 무대는 공연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립오페라단 상임지휘자 김주현씨가 지휘를 맡은 아시안 클래시컬 플레이어즈 60인조 오케스트라와 글로리아합창단, 첼리스트 이강호, 하피스트 김지인 등이 협연한다. 문의 02) 6970-0091 /김민준기자 [illegible]

'국민 가수' 이문세 컴백

13년만에 15집 발표··· 전국 투어

가수 이문세(사진)가 약 13년 만에 새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이문세는 다음달 중 정규 15집을 발표하고 전국 투어 콘서트 '2015 시어터 이문세'를 개최한다고 소속사 케이문에프엔디(KMOON[nd])가 3일 밝혔다.

이번 앨범은 1983년 데뷔한 이문세가 지금까지 보여준 음악에서 한 단계 진화한 곡들로 채워진다. 이문세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긴 웰메이드 앨범이 될 것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다음달 15일 서울 LG아트센터를 시작으로 부산, 전주, 경산 등에서 진행된다. /유지은기자

지금, 당신 곁엔 누가 있나요?

담백하고 흡입력 있는 영화

에 있는 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영화

이자벨 위페르 주연 | 마크 피투시 감독

2월 26일 대개봉!

"봤지? 홈런포"…강정호 화끈한 신고식

ML 첫 시범경기서 공·수 활약 - 美 언론 "밀어쳐 넘기다니" 호들갑

강정호가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네딘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첫 시범경기에서 3회 대형 솔로 홈런을 날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메이저리그 실전 데뷔 경기에서 홈런포를 날리며 화끈한 신고식을 치렀다.

강정호는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더네딘의 플로리다 오토 익스체인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0으로 앞선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홈런을 날렸다. 비거리가 125m에 이르는 대형 홈런이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통산 23승 26패,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한 우완 마르코 에스트라다를 상대로 2구째 몸쪽 높은 빠른 볼을 받아쳐 아치를 그렸다.

1회 첫 타석에서는 에런 산체스를 상대해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고, 7-3으로 앞선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8-4로 앞선 6회 말 수비부터 교체됐다.

이날 경기는 피츠버그가 8-7로 이겼다.

강정호는 "홈런을 칠 때 제대로 방망이에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첫 단추를 잘 끼운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범경기의 첫 막을 화려하게 연 강정호는 4일 장소를 플로리다 주 브라든턴의 매케크니 필드로 옮겨 토론토와의 2차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경기 후 클린트 허들 감독은 "유격수로서 지속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특히 2회 무사 1루에서 조시 도날드슨의 타구를 잡아 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로 엮는 장면은 훌륭했다"고 말했다.

또 "스트라이크 존 높게 들어온 볼이었는데 강정호가 이를 뫼울려 우중간 펜스 너머로 보냈다"며 "아주 좋은 스윙이었다"고 칭찬했다.

미국 언론 역시 강정호의 홈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호들갑을 떨었다. MLB닷컴은 "강정호가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무척 인상적인 홈런이었다"고 보도했다.

CBS스포츠는 '밀어서 넘긴 강정호의 홈런을 주목하라'며 강정호의 시범경기 첫 홈런 영상을 공개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기록조작 의혹 바네사 메이 국제스키연맹 징계에 항소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추려 대회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국제스키연맹(FIS)의 징계를 받은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바네사 메이(37·사진)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AP통신은 4일(한국시간) FIS의 징계에 반발한 메이가 CAS 청문회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메이는 지난해 소치 동계올림픽에 '바네사 바니코른'이라는 이름으로 출전, 올림픽 스키 종목에 출전한 최초의 태국 여자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추려고 나선 대회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빛을 잃었다.

태국은 소치 올림픽 알파인스키 회전·대회전 종목에 남녀 선수 한 명씩을 출전시킬 수 있었는데, 올림픽에 나서려는 선수는 5개 이상의 회전·대회전 경기에 출전해 평균 포인트 140점 이하의 성적을 내야 했다. 어쨌든 메이는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점수를 쌓았지만, FIS 청문위원단은 경기 기록 등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메이는 올림픽이 끝난 뒤 지난해 11월 FIS로부터 4년간 자격정지 징계와 대회 기록이 모두 취소됐다.

하지만 메이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난해 말 CAS에 항소, 이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김민준기자

설기현 은퇴… 성균관대 사령탑으로

"지도자 생활은 감독부터"

2002 한일월드컵 주역 설기현(36·사진)이 4일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대회의실에서 은퇴식을 갖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 시즌까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설기현은 이날 성균관대 축구부 감독 직무대행으로 제2의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설기현은 "이제 다시 '축구선수 설기현'은 볼 수 없겠지만 지금의 심정은 선수로 처음 유럽에 진출했을 때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며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축구를 팀에 바로 입힐 수 있는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다"며 "코치로 시작하면 그런 축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강릉상고와 광운대를 나온 설기현은 2000년 벨기에 프로축구 로열 앤트워프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안더레흐트(벨기에), 울버햄프턴, 레딩, 풀럼(이상 잉글랜드),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몸담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우리나라의 4강 진출에 힘을 보냈다.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1-1을 만드는 동점골을 직접 넣었다.

국내에서는 2010년 K리그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 울산 현대를 거쳐 2012년부터 인천에서 뛰었다.

설기현은 현재 2급 지도자 자격증만 갖고 있어 올해 열리는 대학 대회에는 벤치를 지킬 수 없다. 올해 안에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얻어 내년부터는 직접 벤치를 볼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제2 이정협 찾겠다"

슈틸리케 감독 휴가서 복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의 첫 마디는 "제2의 이정협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약 한 달간의 휴가를 마치고 업무를 재개하는 슈틸리케 감독은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안컵을 앞두고는 준비할 시간이 4개월에 불과해 이정협 밖에는 찾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월드컵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 제2의 이정협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상주 상무에서도 주전이 아니었던 이정협을 발굴해 2015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대표팀에 발탁했다.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으나 이정협은 이 대회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며 슈틸리케 감독에게 보답했다.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휴가를 마치고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신태용 코치의 공백은 당분간 큰 대회가 없어 기존 코치진으로 꾸려갈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시범경기도 돈내야 하나요"

한화 이글스에 이어 NC 다이노스가 7일부터 열리는 2015 프로야구 시범경기의 주말 경기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NC는 마산구장에서 열리는 주말 시범경기에 성인 입장요금을 3000원으로 책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중 경기는 무료고, 주말 경기 중에서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개방한다.

NC 관계자는 "주말 경기에는 외야 응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유소년 야구발전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7·8일 대전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주말 시범경기 입장권을 유료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준기자

"여대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

덕성여대 남녀공학 추진…성 뛰어넘는 경쟁 불가피

덕성여자대학교 이원복 신임 총장이 남녀공학 전환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취임한 이 신임 총장은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남긴 인사말에서 "성(性)을 뛰어넘은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해 남녀공학으로의 변화를 덕성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신임 총장이 덕성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학생 수 감소로 학생 모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여대로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남녀공학 전환에 관해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직 없다"며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덕성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덕성여대 법인 박원국 전임 이사장이 1975년 마련한 덕성장기플랜에서 남녀공학 전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추진되지는 않았다.

◆남녀공학 전환 -배경은

일각에서는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이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의 여파라고 해석한다.

교육부가 적용하고 있는 대학평가지표에 포함된 취업률, 학생 충원률 등이 남녀공학에 비해 여대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평가를 벌였다. 취업률과 학생 충원률, 전임교원률 등의 수치를 토대로 대학의 교육 여건과 교육 성과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하위 15%에 해당되는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교육부는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에 2015학년도 입학 정원을 줄이면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덕성여대는 입학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 대상 제외 조치를 받아들였다.

선병된 덕성여대 신임 총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3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녀공학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는 대학 간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대를 유지하느냐 공학으로 전환하느냐는 교육부 평가와는 큰 관련이 없는 듯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취업률 지표 적용에 있어서도 성별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불리 문제가 불거질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재학생 충원률 관련해서는 남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군 입대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복학하면 들어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점점 커지는 여대의 위기

덕성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전국에는 이화·숙명·성신·서울·동덕·광주여대 등 6곳의 여자 대학만 남게 된다.

상명대학교는 1996년 상명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교명을 바꿨다.

당시 상명여대는 학교 동문회와 교수, 교직원,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 의견수렴을 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반발도 컸지만 학교 구성원들과 사전 논의도 많이 하고 동문들을 찾아가 설득하면서 3년에 가까운 준비 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신여자대학교는 2010년 성신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다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덕성여대를 신호탄으로 다른 여대들도 속속 전환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여대 관계자는 "여대라는 간판으로는 취업 등 사회 진출에서 한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대학 구조 개혁에서 여대들이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구조 개혁 평가에서 남녀 대학의 차이점을 감안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학 전환은 학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경기자 ljh@metroseoul.co.kr

/연합뉴스

대학생 10명 중 6명 빚지고 졸업

올해 대학 졸업생 10명 중 6명이 빚을 지고 졸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올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1095명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대학 졸업생 평균 부채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8.4%는'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1321만원으로 지난해(1275만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또 처음 본인 명의로 빚을 낸 시기가 1학년이라고 답한 이들(53.2%)이 가장 많았고 빚을 낸 이유는 대부분(90.9%) 학비 때문이었다.

아울러 현재 빚이 있는 졸업생 중 83.1%는 "취업한 후 갚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첫 직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1.8%가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영향없다'고 답변한 이들은 9.1%에 그쳤다.

/장석수기자 ss@metroseoul.co.kr

꽃샘 추위라도 봄은 왔어요 꽃샘추위가 찾아온 4일 서울 성동구 응봉동 거리에 심어진 꽃 뒤로 겨울 옷차림을 한 학생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거리노숙인 단기월세 지원

서울시가 2012년부터 거리 노숙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리노숙인 등 517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세를 지원한 결과 이 중 425명(82.2%)이 거리로 다시 나오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이번 사업은 거리노숙인이나 노숙 위기 계층에게 한달 25만원 가량의 월세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60% 이상의 노숙인이 거리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425명 중 218명은 취업, 사회에 복귀하는데 성공했으며 144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인사

■외교부
▲조정기획관 이순해
■관세청
◇임용 ▲차장 이돈현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일석 관세심사등심사정책국장 이찬기 ▲서울세관장 서윤원 ▲인천공항세관 박철구 ▲부산세관장 성재열 ▲인천세관장 차우삼 ▲대구세관장 주시경
■농촌진흥청
◇승진 ▲충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차선세
■가천대학교
▲특임부총장 박승철 ▲평생교육원장 김은옥 ▲뇌과학연구원부원장 김유경 ▲진단치료기기연구센터장 이도 다쓰오 ▲이길여 암당뇨연구원부원장 진혜숙 ▲에너지나노소재연구센터장 최형욱 ▲아카데미연구소설립추진위원장 김동아 ▲발전기금본부장 (판독불가)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창식 ◇편집국 ▲콘텐츠협력부국장 이창곤 ▲디지털에디터 박종연 ▲경제부장 정남구 ◇연구기획조정실 ▲실장 박순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한귀영 ◇전략기획실 ▲부실장 김일배(빛 미래전략부장)
■중원대
▲기획정보처장 겸 인선교육원장 조용태 ▲학생지원처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조인호 ▲대외협력처장 겸 홍보실장 김성호 ▲대학원장 한영서 ▲인문사회대학장 어세우 ▲이공대학장 안영주 ▲의료보건대학장 김지훈 ▲항공대학장 이현철 ▲국제교류센터장 겸 한국어교육센터장 전충관 ▲스포츠단장 김은정 ▲학술정보원장 윤연걸 ▲평생교육원장 박천규 ▲공공교육원장 이재수 ▲행정관장 김진, 박금숙 ▲여주다문화통합연구센터장 김철수 ▲비행교육원장 차한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연구처장 겸 암센터장 조치흠 ▲부원장 유규리로센터장 황재석 ▲진료협력센터장 배기철 ▲교육수련부장 조용원 ▲심사실장 전유진 ▲국급실장 직무대리 주명돈 ▲의과학연구소장 서성일 ▲암연구소장 백권기 ▲간호과학연구소장 이경희 ▲뇌연구소장 김희철 ▲통증연구소장 조형원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 정원철 ▲의료정보학교실 주임교수 이종정 ▲내분비대사내과분과장 김혜순 ▲간호대학 간호학과 야간특별편입과정 학과장 이은숙 ▲대외협력처장 이석재 ▲건강증진팀장 강한표
■무역
◇부사장 승진 ▲전무 이수녀 ◇전무 승진 ▲동남권영업본부장 홍순돈 ▲수도권영업본부장 이종수

부고

▲조봉득씨 별세, 김만곤(주원항공여행사 회장)·양수(주원항공여행사 대표)씨 모친상 = 4일 오전 천안삼성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055-(판독불가)-5551
▲김상준 씨 별세, 김하경(신한금융 사회공헌부 부장)씨 부친상, 임동근 연합뉴스 울산본부 차장 씨 장인상, 송미령(대전지방회장공제회 기업투자팀 대리)씨 시부상 = 3일 오전 4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5시 02-2072-2020
▲마순만(순억상사)씨 별세, 이현영(브라질거주)·광원(사업)·광원(사업)·광자씨 부친상 = 3일 오후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10시 062-220-3352
▲박용무씨 별세, 전영(대전 신탄진신협 이사)씨 부친상 = 4일 오전 2시 40분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042-611-3979
▲정무용씨 별세, 정휴남(전 제주매일 편집국장)씨 부친상 = 3일 오전 5시 20분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7시 010-3018-0830
▲최순남 씨 별세, 오서권(대전신평여고 교장)·무균(한진해운 전무)씨 모친상 = 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6일 오전 02-2256-5840

9호선 출근 대란 막아라

28일 9호선 2단계 개통…서울시 수송량 확대 등 3대 대책 제시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인 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이 28일 개통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출근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가 지난달 시험운전을 벌인 결과 9호선 승객은 하루 평균 2748명 늘어난 데 반해 지하철 운행횟수는 60회 줄었다. 특히 가양→신논현 방면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루 승객의 25.1%가 몰려 혼잡도가 240%를 넘어섰다.

혼잡 원인은 강서·양천 등 주거지에서 여의도·강남 등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의 특성과 출근 시 급행열차를 선호하는 경향 등이 꼽혔으며 이용자 수 역시 예측보다 많았다.

이에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열차 증차 시기를 애초 계획한 2018년에서 1년 앞당겨 2017년까지 70량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내년 9월 20량을 투입하고 2017년까지 나머지 50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말부터는 일반열차는 1대당 기존 4량을 유지하되 급행열차는 6량으로 운행해 수송량도 늘리기로 했다. 또 2018년 예정된 3단계 구간(잠실운동장~보훈병원) 개통에 맞춰 80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증차 전까지 출근시간대 혼잡완화 대책도 마련했다. 출근시간대 예비차량을 1대 추가로 투입하고 김포공항→신논현역 구간의 급행열차를 2회 추가로 운행해 3400명을 더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출근전용 급행순환버스 8663번 1fl대를 3회씩 총 45회 운행해 가양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승객 1만1000여 명 중 18%(2100명)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게다가 첫차부터 오전 6시30분 사이 9호선을 타는 승객의 기본요금을 20~3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시는 여의도·서초·강남 지역 종사자 100명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연 1회 최대 2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혼잡시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도 늘리고 9호선 이용객이 많은 강서·양천 영등포지역 주민가에 출근시간대 수요 분산을 위한 협조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제용기자 hesuil@metroseoul.co.kr

교도소서 배운 기술로 빈집 턴 40대 구속 서울 혜화경찰서는 교도소에서 현관문을 여는 기술을 배워 출소한 후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털어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로 최모 남성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CCTV 의무화 부결에 뿔난 학부모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못해" 어린이집 '환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권모(34·여)씨는 "주위 학부모들도 요구해왔던 심찰인데 왜 부결됐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소규모 가정형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려 했던 김모(30·여)씨는 "CCTV가 설치되면 당장 교사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사·아이·부모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가정형 어린이집에는 CCTV가 거의 없어 앞으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백정경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최근 문제가 된 사건들은 이미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이는 CCTV 의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했다.

/송지원기자

즐거운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 비드티원캠프에서 이태원과 한남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 수강생들이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남산 3억 의혹' 라응찬 무혐의 처분

이상득(80)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에 휩싸였던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때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이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이 전 행장의 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시민단체는 라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부진했다며 고발했다.

/최재흥기자

어음 위조한 연예기획사 前 대표 구속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어음을 위조한 연예기획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9)씨를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낸 이씨와 짜고 이씨가 인수하려던 벤처 운영업주 A(54)씨에게 "벤처를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은 뒤 1억원 상당의 어음 4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11월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기소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정기자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소주